

세단·SUV 장점 담고 가성비까지 잡았다



르노삼성 XM3

“젊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할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4년 만에 내놓은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M3는 세단과 SUV의 매력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특히 XM3는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지난달 21일 사전 계약 시점부터 고객 인도일까지 1만대를 넘어서는 계약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신차 가뭄에 시달려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 하락을 기록하던 르노삼성의 반동을 이끌고 있다.

지난 12일 XM3 시승행사에 참석해 서울 잠원동 웨이브아트센터를 출발해 경기도 양평 더힐하우스까지 왕복 약 120km를 주행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 이상의 주행 성능과 첨단 사양을 갖추고 있다. 가격도 1700만원대부터 시작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는 물론 가성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도 뛰어났다. 다만 아쉬운 점은 XM3의 전면부가 SM6와 QM6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계승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인상은 크로스오버 형태의 SUV라는 점에서 지상고는 높지만 차체 높이는 기존 SUV와 달리 낮다는 점에서 날렵함이 묻어난다. XM3 동급 차종 가운데 차체높이는 1570mm로 가장



르노삼성 XM3 전측면(왼쪽)과 실내, 후측면.

지상고 높고 차체 낮은 크로스오버 기존 SUV와 달리 날렵함 묻어나

세로형 9.3인치 디스플레이 탑재 디스플레이 시인성·조작성 우수

변속 충격 거의없고 반응 빠른 편 코너구간 롤링 없이 안정적 주행

낮지만, 최저지상고는 186mm로 가장 높아 세련된 느낌을 준다. 과거 국내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았던 BMW의 GT를 연상케 한다.

본격적인 주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깔끔했다. 세로형 9.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다른 차들에 비해 시인성이 뛰어났다. 또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실

내 환경을 버튼이나 다이얼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 직관성 및 조작성도 우수했다.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라 바뀌며 실시간 최고출력과 최대토크를 보여주는 게이지와 내비게이션 화면까지 보여주는 기능을 갖췄다. 또 지상고가 높아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이날 시승 차량은 1.3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 TCe 260을 적용한 모델로 독일 게트라의 7단 스텝 듀얼클러치 변속기(DCT)와 맞물려 최고출력 152마력, 최대토크 26.0kg·m의 힘을 낸다. TCe 260 엔진은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엔진으로 벤츠 A200, CLA에도 적용된다. 변속 충격은 거의 없었고 반응도 빠른 편이었다. 속도가 붙어도 XM3는 안정적 승차감을 보여줬다.

코너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뽐냈다. 차 높이가 낮아서 기존 S



UV에서 느껴졌던 롤링 현상(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핸들링이 가벼워 도심에서는 운전자가 가볍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고속 구간에서는 섬세하게 컨트롤해야 한다.

크로스오버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했지만 2열 레그룸과 헤드룸도 여유로웠다. 트렁크 공간은 513L로 동급 최대 수준의 적재공간을 제공한다. 또 복합연비는 13.7km/L로 동급최고 수준이다.

XM3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다. 1.6 GTe 모델이 1719만~2140만원, TCe 260 모델이 2083만~2532만원이다. 이번 달 인화된 개별소비세 덕분에 가격이 76만~163만원 내려갔다. 가장 비싼 트림에 모든 옵션을 적용해도 가격은 2800만원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에어부산

부산·김포 출발 제주행 노선 증편

에어부산이 부산-제주와 김포-제주 노선을 대상으로 증편 운항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28일까지 부산-제주 노선을 매일 왕복 3회에서 5회, 김포-제주 노선을 매일 왕복 2회에서 3회로 증편해 총 440편을 운항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급석은 총 1만 6280석 추가 확대된다. 에어부산은 코로나19 발병 전 ▲부산-제주 매일 왕복 10회 ▲김포-제주 매일 왕복 5회 운항해, 지역민들의 항공이동 편의를 높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 노선들을 감편 운항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임시 증편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한국인 입국 거부 국가 확대 등의 이유로 제주를 비롯한 국내 여행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KT ‘도시락 행사’로 광화문 상권 돕는다

코로나19에 주변 음식점 돕기 일환 구내식당서 ‘사랑나눔 도시락’ 판매



KT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을 돕기 위해 도시락 나눔 행사에 나선다.

KT는 4월 11일까지 4주간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만든 ‘사랑나눔 도시락’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사내식당에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랑나눔 도시락’은 KT 내부 직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광화문 주변 상권을 보며, 이를 살려 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며 시작했다.

KT는 인근 식당에서 만든 도시락 형태의 식사를 임직원들에게 사내식당

과 동일한 가격인 4500원에 판매한다. 재택근무 인원을 고려해 일주일에 1000개의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식당 가격과의 차액은 KT에서 추가로 보탬 예정이다. ‘사랑나눔 도시락’에는 코로나19로 70%까지 매출이 감소한 광화문 인근의 소규모 식당들이 참여 중이다. KT는 도시락 운영 기간 동안 참여 식당을 지속 늘릴 계획이다.

한편, KT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이

송을 맡은 119 구급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펼쳤다. KT는 구급차 집결지인 대구시 두류 정수장에 식사 장소를 마련했다. 매일 300인분의 중식과 함께 구급대원들의 편의를 위한 휴대폰 충전 서비스도 지원했다.

현재 대구에는 자가 격리중인 확진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위해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구급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KT 홍보실 지속가능경영담당장 이선주 상무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사랑나눔 도시락’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



지난 10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집단감염 차단’ 대구 콜센터 폐쇄

이통3사, 재택근무·AI 고객센터 등

이동통신3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대구 지역의 콜센터를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강력 대응에 나선다.

SK텔레콤은 대구 지역에 있는 2개의 고객센터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1·2 고객센터에는 46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상담직원은 360여명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상담직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KT 역시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대구 고객센터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대구센터가 처리하던 상담은 다른 센터에서 처리한다. KT는 인공지능(AI) 고객센터의 챗봇 서비스나 AI 상담 등을 통해 상담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이날부터 31일까지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고객센터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대구고객센터 근무자들은 이날 오전까지 사전예약 업무 등을 마무리하고, 오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한다.

LG유플러스는 상담사 연결 외에도 챗봇, 고객센터 앱, AR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1년간 추가데이터 제공 ‘데이득 프로모션’

KT엠모바일, 알뜰폰 요금제 3종

KT의 알뜰폰 자회사 KT 엠모바일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위해 ‘실용 USIM 10GB’와 ‘LTE 실용 15GB+’, ‘M 데이터 선택 USIM 10GB’ 등 3종의 고용량 요금제에 1년간 추가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득(데이터+이득)프로모션’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KT 엠모바일은 월 기본료 1만9800

원에 음성 10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0GB를 사용할 수 있는 ‘실용 USIM 10GB’에 월 10GB의 추가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월 기본료 2만5300원에 음성 100분(망 내 1회선 지정 기본제공), 문자 100건, 데이터 15GB(소진 시 3Mbps 속도 기본제공)를 사용할 수 있는 ‘LTE 실용 15GB+’에는 월 50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월 기본료 3만2980원에 음성, 문자 기본제공, 데이터 10GB(소진 시 월 2GB+3Mbps 기



본제공)를 사용할 수 있는 ‘M 데이터 선택 USIM 10GB’는 월 100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